

학부 교양영어 수업에서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사용자 인식과 오류를 중심으로

박혜선·최진실
(계명대)

1. 서론

최근 기계번역의 발달은 통번역 뿐만 아니라 일반 언어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외국어 학습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수업 중 학습자들의 과감하고 대담한 기계번역 애플리케이션 사용이다. 이처럼 일상에서, 학습현장에서 기계번역의 사용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면 기술을 활용한 보다 효과적인 언어학습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양영어 교육 현장에서 적합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학부 수강생들의 기계번역 사용자 인식을 설문을 통해 살펴본 후 학습자의 포스트에디팅 오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생들의 포스트에디팅 품질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김자경 2022; 서보현과 김순영 2020; 이상빈 2017). 이상빈(2017)에서 정확성 측면의 오류라도 포스트에디팅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질 수 있고 학생들은 원문과 기계번역문을 제대로 비교하지 않고 단어나 구 차원

의 소규모 수정에 집중하거나 언어나 문체 수정에 소홀할 수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포스트에디팅 결과물 품질에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나 교육 배경도 중요한 요소이므로(서보현과 김순영 2020; 이준호 2021), 실제 교육현장에서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 해당 교실의 교육 환경과 학습자 요인을 고려한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부 교양영어 교육 기반의 사례연구로 그 필요성이 있다.

그간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연구 또는 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통번역분야에서 전공자들을 위한 이론 및 실무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O'Brien 2002), 국내 교육사례 실험연구(마승혜 2018; 박혜경 2018; 이상빈 2017, 2018)가 주로 진행되었다. 통번역교육에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교육의 목적이 산업현장의 수요 및 업계의 기술적 변화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언어교육에서 포스트에디팅 교육의 목적은 단연코 언어능력 향상과 직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언어교육 현장에서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언어교육 커리큘럼에서 포스트에디팅 도입방안(교육과정 모델 제시)(Lewis 1997),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기계번역 사용과 관련된 학습자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이윤재 2020; 임희주 2017; 조인희 2018; Lee 2019; Niño 2009; White and Heidrich 2013), 대부분의 연구는 모국어(L1)에서 외국어(L2) 방향, 즉 글쓰기의 관점에서 진행되었고 독해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 특히 이중언어 학습에서 L1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는 것은 외국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던 시각이 지배적이었기에(Qureshi and Aljanadbah 2022: 247) 포스트에디팅을 도입한 언어교육에서도 L2로의 글쓰기보다 L1으로의 독해 교육과 그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그러나 학습자의 한 언어에 대한 능력이 다른 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트랜스랭기징(translanguaging) 이론에서도 지적하듯이, 학습자의 모국어 사용, 즉 L1을 동반한 번역 교수법이 L2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Qureshi and Aljanadbah 2022)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Cano and Ruiz 2020)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한 번역 방향의 포스트에디팅 교육에 착안한다. 또한 국내 대학 교육에서 상당 부분의 교양 영어 교육이 글쓰기보다 독해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국내외 포스트에디팅 교육사례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사용자 경험 및 인식, 학습자 포스트에디팅 결과물 오류 유형 및 품질에 대한 연구를 개괄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논의한다. 4장에서는 설문을 통한 학습자의 기계번역 사용 인식을 논의한 뒤, 학습자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오류 유형과 누락 사례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내외 포스트에디팅 교육사례

국내외 포스트에디팅 교육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통번역학 전공수업과 외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기계번역을 도입한 포스트에디팅 교육 사례로 나눌 수 있다. 줄리와 메이몬(Jolley and Maimone 2022: 27)에서도 지적하듯이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언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겹칠 수는 있지만 직업교육이라는 교육 목표의 차이가 있어 논의의 편의상 나누어서 논의하도록 한다.

통번역학 전공수업에서 포스트에디팅 교육사례는 최근 기계번역기 보급과 확산으로 통번역학 업무의 상당 부분 변화를 겪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맞춘 교육적 필요성이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통번역학 분야에서는 기계번역을 교육에 도입하는 당위성 진단을 넘어서 실제 교수학습의 실천적인 문제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 있다(이상빈 2017). 통번역학에서 포스트에디팅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자면 첫째, 기계번역 도입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점, 둘째, 번역능력과 포스트에디팅 능력이 서로 관련이 없다는 점, 셋째, 포스트에디팅에 능숙한 번역사를 양성하여 이들이 졸업 후 바로 그 능력을 쓸 수 있다는 점, 넷째, 번역사의 기계번역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계번역 성능 개선을 바탕으로 기계번역 활용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O'Brien 2002: 100).

번역학 분야의 포스트에디팅 교육사례를 살펴보면 이상빈(2017)에서는 학부 번역전공 학습자 5명을 대상으로 영한번역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어휘와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확성 오류, 완결성, 논리, 사실관계 오류, 연결관계 및 자연스러움, 사용 적합도, 하위언어, 연어 및 관용구, 문법, 레이아웃 총 10개의 오류 패턴이 나타났다. 한편 김자경(2022)에서는 서울 소재 통번역대학원 학습자 13명을 대상으로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한영 번역을 실행하면서 학습자의 오류 및 누락 패턴을 분석하였다.

한편 언어교육에서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실행한 연구로 니뇨(Niño 2004)는 상급 수준인 스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스페인어 포스트에디팅을 실행하였다. 벨람(Belam 2003)에서는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의 강점으로 목표 언어뿐만 아니라 원천 언어, 원천텍스트에 학생들이 집중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어휘, 표현, 문법, 문체까지도 학습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시 말하면 L2→L1으로의 번역에서도 L2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리퍼(Kliffier 2005)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어-영어 포스트에디팅을 실행한 결과 모두 번역 결과물의 질적 향상이 있었고, 특히 언어 능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스스로 번역을 하는 것보다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Lee 2022)에서는 기계번역을 활용한 L2 글쓰기에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이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위권 학생들에 비해 하위권 학생들은 오류 수정을 적게 하였고 하위권 학생들이 L2의 능력 부족으로 포스트에디팅의 수업 효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기계번역(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사용자 경험 및 인식

기계번역을 언어학습에서 도입한 연구들은 번역기 사용후 언어 능력이 실제 향상되는지를 검증한 연구보다는 번역기의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먼저 기계번역에 대한 사용자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한 국외 연구사례를 살

피보자. 니뇨(Niño 2009)에서는 16명의 스페인어 상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스페인어 기계번역 후 그들의 인식을 조사했는데 69%의 학생들이 미래에도 기계번역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독해 부분에서 어휘 뜻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와 빨리 초고를 쓰기 위해서 기계번역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75%의 학생이 기계번역이 유용한 언어 도구라고 답했으며 81%의 학생은 기계번역이 자신의 스페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답했고, 75%의 학생은 기계번역이 외국어 글쓰기에서 더 자신감을 주었다고 답했다. 즉, 이들은 대체로 기계번역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와 하이드리히(White and Heidrich 2013)는 미국의 독일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영어-독일어)에서 번역기에 대한 믿음이 강한 학생은 에디팅을 거의 하지 않고 오류가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남겨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해당 연구는 L1→L2로의 번역이었는데 언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 번역기를 사용해도 그 결과물이 잘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포스트에디팅이 어려웠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중급 이하의 언어교육 현장에서 L1→L2로의 포스트에디팅 교육이 한계점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번역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제의 27.7%에 번역기를 사용했다고 밝혔기에 교수자들은 번역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류의 종류를 학생들에게 미리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White and Heidrich 2013: 242).

한편 기계번역을 영어교육에서 사용하고 학습자 인식을 조사한 국내 연구는 임희주(2017), 조인희(2018), 이(Lee 2019), 이윤재(2020)가 있다. 임희주(2017)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양영어 글쓰기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대체로 번역기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영어 학습에 번역기 사용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조인희(2018)는 영작문 수업에서 번역기 활용을 조사했는데 임희주(2017) 연구와 달리 초급 학생을 제외하고 번역기 사용으로 영어 글쓰기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2019)는 교양영어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번역기 사용으로 영어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윤재(2020: 56)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72%의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처음 번역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영어

독해(영한)보다 영어 글쓰기(한영)에 번역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각각 비율은 29.8%, 70.2%로 영어 글쓰기에 번역기를 활용한다는 응답자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윤재에서는 평가 환경을 주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독해의 경우 교실에서 엄격한 통제하에 지필고사를 통해 평가하므로 번역기 접근이 금지되지만, 교실외에서 자유로이 실시되는 수행평가의 경우 번역기 접근이 허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어 번역기를 사용하면 학생들의 글쓰기에 오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대체로 상급 수준의 학생보다 영어 수준이 낮은 학생의 작문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었다(이윤재 2020: 57). 이러한 결과는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 기계번역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결과이므로 이(2022)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즉 학습자의 언어능력과 번역기 사용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반된 결과가 혼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희주(2017: 737)의 연구에서도 영한 방향보다 한영 방향에서 번역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각각 43%, 57%).

2.3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의 오류 유형과 품질 개선 한계

번역에서 기계번역을 도입하면 생산성 증가와 같은 가시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 품질 개선에 대한 논의도 국내외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습자가 기계번역 결과물을 정확도 오류의 측면에서 라이트 에디팅 하는 것이나(김순미, 신호섭, 이준호 2019), 명확한 오류가 있더라도 학습자가 포스트에디팅 경험이 없거나 낮은 언어/번역 능력, 관심 저하 등의 이유로 오류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산체스 기온과 토레스 호스텐치(Sánchez-Gijón and Torres-Hostench 2014)는 오역과 누락차원의 정확성 오류, 문법과 구문 차원의 언어적 오류를 분석했는데 L2→L1의 방향으로 진행한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에서 언어적 오류가 더 잘 개선되는 반면 L1→L2 방향에서는 정확성의 오류가 더 잘 개선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첼(Mitchell 2015)은 L2→L1의 방향으로 포스트에디팅을 실행한 결과, 오역은 포스트에디팅 이후에도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오류로 나타났다. 김자경(2022)에서는 국내 통번역대학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 누락 오류는 거의 대부분 수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어휘 오류는 약 29%, 구조 오류는 약

40%가 수정되지 않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L1→L2로의 포스트에디팅에서 누락 차원의 정확성 오류가 더 잘 개선된다는 산체스 기온과 토레스 호스텐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시간 제한이 없는 환경에서 학습자는 누락 오류는 거의 대부분 해결하지만 어휘 오류와 구조와 같은 언어적 오류는 미수정 상태로 남겨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영한번역을 대상으로 한 이상민(2017)의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주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어나 구 수정에 치중하는 점, 직역투나 잘못된 문장 부호 사용 등 언어와 문체를 소홀히 하는 점, 해당 연구의 대상자료였던 의학텍스트의 전문용어 처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영어교육 분야에서 기계번역을 도입한 경우 어떠한 오류 유형이 자주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고등학생의 영어 글쓰기를 연구한 이윤재(2020: 57)는 번역기 활용 여부에 따라 자주 나타나는 오류 유형이 달라짐을 언급한 바 있다.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들은 관사, 구두점, 어휘 선택, 동사 형태, 문장 구조 순으로 오류를 자주 범했다면 번역기를 사용했을 때는 문장 구조와 어휘 선택, 구두점 사용, 관사, 동사 시제 순으로 오류가 자주 나타났다. 즉 한영 번역에서 기계번역을 사용하면 관사 오류가 많이 개선되지만 문장 구조 오류는 상대적으로 덜 개선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윤재에서는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평균 오류 빈도수가 15.1개였던 반면, 번역기를 사용할 경우 평균 6.58개로 전체 오류 빈도수가 줄어들음을 확인한 바 있다. 대학생들의 글쓰기를 대상으로 한 이(2019: 105)의 연구에서도 번역기를 활용한 경우 전체 1,548문장 중에서 847개의 문장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는데(54.7%) 형식적 오류가 1,001건으로 전체의 52.6%인 반면 의미적 오류는 902건, 47.4%로 나타났다. 이(2019: 105-106)는 형식적 오류가 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생략과 같은 문법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한국어 원문에서 주어 등이 빈번하게 생략되는 것을 영어 글쓰기에서 바로 잡지 못한 것으로 설명한다. 반면 의미적 오류의 경우 ‘알바→Alba’, ‘로망→romance’처럼 한국 문화에서 쓰이는 의미를 영어에서 그대로 옮긴 오류가 빈번했다고 한다(Lee 2019: 54).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의 상당수가 학습자의 번역기 사용 인식을 조사하면서 주로 한영 방향의 글쓰기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영한 번역에서 번역기 사용을 동반한 학습자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하다. 둘째, 학습자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에서 언어적, 문법적 오류가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여러 국내외의 사례에서 지적되었고 이러한 오류 유형은 학습자 교육 배경과 언어능력에 따른 편차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해당 교실의 학습자가 어떠한 오류를 수정하고 어떠한 오류를 누락하는지에 대한 실증 사례가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에서 2022년 1학기 신입생 대상의 필수 과목인 교양영어를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본교의 교양영어 수업은 학생들의 영어 성적에 따라 상, 중, 하 3개 수준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인문사회 분야의 중급 2개 분반에 속한 약 49명(여성 32명/65.3%, 남성 17명/34.7%)이다.¹⁾ 수업 전 설문의 응답자는 49명, 수업 후 설문의 응답자는 42명(여성 30명/71.4%, 남성 12명/28.6%)이다. 수업 후 설문의 응답자가 더 적었으므로 응답자 배경정보는 수업 후 설문 참가자를 기준으로 논의한다.

수업 후 설문에 참가한 42명의 나이 분포도는 20세가 34명으로 81%를 차지했고 그 다음 21세 4명, 22세 이상 4명으로 각각 9.5%를 차지했다. 이들의 해외 영어권 체류 경험은 ‘없음’이 38명(90.5%), 3개월 미만이 4명(9.5%)이었다. 응답자의 약 40%가 영어에 흥미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그렇다 12명/28.5%, 매우 그렇다 5명/11.9%), 50%(21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는 자신의 영어 읽기와 듣기 수준을 중급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각각 59.5%, 54.8%), 말하기와 쓰기의 경우 대다수가 초급이라고 응답하였는데(76.2%, 80.5%), 특히 학생들이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쓰기라는

1) 교양영어 분반 배치는 수능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본 연구의 대상인 중급반의 경우 수능 영어 성적이 3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포한다. 수능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고교 내신 성적으로 대체하는데 이 경우도 학생부 영어 성적 기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배정한다.

점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 학습자가 스스로 평가한 영어 능력 수준

영어 읽기 수준	초급	중급	상급
	17명(40.5%)	25명(59.5%)	0(0.0%)
영어 듣기 수준	초급	중급	상급
	17명(40.5%)	23명(54.8%)	2명(4.8%)
영어 말하기 수준	초급	중급	상급
	32명(76.2%)	10명(23.8%)	0(0.0%)
영어 쓰기 수준	초급	중급	상급
	33명(80.5%)	8명(19.5%)	0(0.0%)

<표 1>을 보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듣기의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각 영역에서의 영어 수준을 초급 혹은 중급으로 스스로 평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양적 및 질적 연구 방법을 결합한다. 양적 연구로는 학습자의 기계번역 사용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수업 전, 수업 후)을 실시하며 질적 연구로는 수업에서 조별로 작성한 일지,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의 오류분석 연구로 진행된다. 조별로 작성한 일지는 세 개 이상의 번역기 결과물을 비교하고 하나의 결과물을 선택한 동기와 이유를 작성한 활동일지이다. 이는 화이트와 하이드리히(2013)에서 학생들의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번역기의 한계점을 이해하고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근거로 했다. 설문 내용 구성은 국내 영어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의 기계번역 사용 인식을 조사한 임희주(2017)와 이운재(2020)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되 설문 결과를 본교의 교과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계번역과 대상 텍스트 장르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였다.

3.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22년 1학기 교양영어 수업 중에서 포스트에디팅 수업을 4주간 실시하였다. 수업에 사용된 텍스트는 소설과 뉴스로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정보적 텍스트가 아닌 소설을 교과과정에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기계번역기의 오류 유형을 확인하고 학습자 스스로 원하는 번역기를 선택하여 포스트에디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수업 전 설문은 2022년 4월 12일에 실시하였고, 수업 후 설문은 약 두 달 뒤인 2022년 6월 14일에 실시하였다(설문지 부록 1과 2 참조). 연구도구 및 수업개요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도구 및 수업개요

	소개	실습 1차		실습 2차		조별과제
활동	포스트에디팅 이론 및 방법 소개	번역기 비교 및 선택(50분)	포스트에디팅 (50분)	번역기 비교 및 선택(50분)	포스트에디팅 (50분)	포스트에디팅 과제 및 평가
날짜	4월 6일	4월 13일	4월 15일	6월 3일	6월 8일	6월 14일
텍스트		The Gift of Magi		Desperation becomes sorrow after elementary school shooting		자유
장르		소설		신문		자유
분량		약 1,000단어		약 1,000단어		약 1,000단어

먼저 1주차에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대해 이론과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2주차부터 실습을 시작했다. 먼저 첫 시간(50분)에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에 올린 대상 텍스트를 4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각 조가 세 개 이상의 번역기를 실행하여 그 결과물을 비교하고 가장 선호하는 번역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각 조는 활동일지에 각 번역기의 결과물을 첨부하고, 해당 번역기를 선택한 이유를 작성하여 LMS에 올리도록 했다. 두 번째 시간(50분)에는 첫 번째 시간에 작성한 일지와 선택한 번역기를 토대로 포스트에디팅을 실행했다. 워드나 한글 문서에서 학습자가 포스트에디팅한 부분은 변경 추적 기능을 활용하여 표시가 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조는 일지

에 포스트에디팅을 왜 그렇게 했는지, 번역전략 및 방침에 대해서 간략히 작성하도록 하여 당일 밤까지 LMS에 올리도록 했다. 제출을 수업 시간 내로 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학습자들이 이전에 포스트에디팅 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고려해서 짧은 시간 내에 번역 활동을 마쳐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해당 활동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과 후 과제로 가져가지 않고 수업 후 바로 업로드하였다.

실습은 총 2차로 구성하여 1차에는 소설, 2차에는 뉴스 텍스트를 다루고 실습이 끝난 뒤 조별 과제로 자유 주제/텍스트를 선정해서 포스트에디팅한 후, 해당 결과물을 평가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계번역에 대한 학습자 인식 설문 결과

4.1.1 기계번역기 처음 사용 시기 및 선호하는 기계번역기

본 연구의 수업 전 설문에 참여한 49명 모두 수업 전에 영어 번역기를 사용해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59.2%(29명)가 중학교 때 영어 번역기를 처음 사용했다고 답변하였고, 26.5%(13명)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사이에 처음 번역기를 사용했다고 답변하였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4.1%(2명)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약 85%(42명)의 학생들이 영어 번역기를 중학교 시기 또는 그 이전에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이윤재(2020: 35)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입학 전 번역기를 사용해봤다는 응답자가 72%였던 결과와 매우 흡사하다.

학습자들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번역기는 네이버 파파고로 전체의 85.7%(42명)가 응답하였고, 나머지 14.3%는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애플 아이폰의 번역기, 카카오 번역기 등 다양한 번역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응답자들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번역기가 파파고라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비슷한 결과가 이윤재(2020: 36)의 연구에서도 있었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파파고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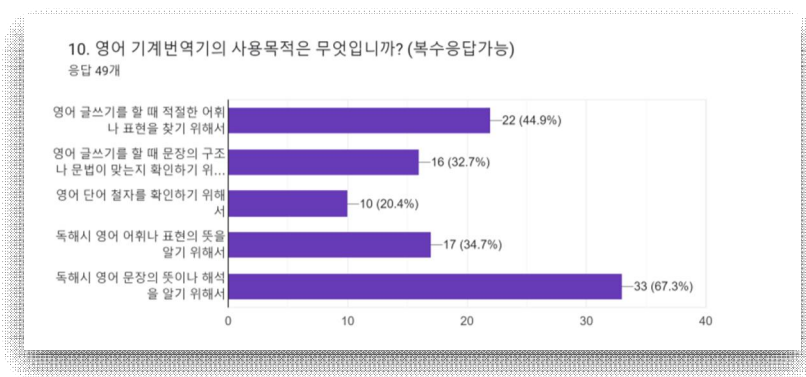
가 82.6%(133명)인 반면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쓰는 경향이 목도되었다.

한편 수업 후 설문에서 번역기 사용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이 59.5%(25명), ‘매우 만족’이 11.9%(5명)로 긍정적 평가가 71.4%를 넘었으며, ‘보통’으로 응답한 응답자 21.4%(9명), ‘불만’ 7.1%(3명)로 나타났다. 사용 후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번역기는 네이버 파파고가 1위로 45.2%(19명)의 응답자가 선택하였고, 그 다음 카카오 38.1%(16명), 구글 트랜스레이트 16.7%(7명)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가장 만족했던 번역기로 파파고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문장 간 연결이 자연스러움, 빠르게 긴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고, 카카오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한국어 문법과 일치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구글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문장 번역이 가장 깔끔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학습자들의 일지를 분석한 결과 번역기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역 결과물의 자연스러움, 오류 빈도가 낮은 것 때문이었지만 구글의 경우 번역 가능한 텍스트의 길이에 제한이 있어 사용이 불편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4.1.2 기계번역기의 사용목적과 번역방향별 만족도

또 흥미로운 사실은 수업 전 설문에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평소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21명, 42.9%)보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기계번역기를 더 많이 사용한다(28명, 57.1%)는 사실이다. 이는 임희주(2017), 이운재(2020)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학습자들은 글쓰기보다 독해 교육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이는 본교의 포스트에디팅 교육에서 영한 번역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다. 영어 기계번역기의 사용목적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복수 응답의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영어 기계번역기의 사용목적



〈그림 1〉에서 영어 글쓰기보다 독해 시 영어 어휘나 문장의 뜻을 알기 위해서 번역기를 사용한다는 학습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족도의 경우 영한 번역보다 한영 번역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한 번역의 경우 만족도가 ‘보통이다’고 응답한 응답자 51%(25명), 만족과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각각 28.6%, 8.2%로 나타났으나 한영 번역의 경우 보통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40.8%(20명), 만족과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각각 38.8%, 10.2%로 나타났다.

4.1.3 영어 기계번역기 사용의 장단점

기계번역 사용의 장단점은 수업 전 설문과 수업 후 설문에서 모두 질문하였다. 먼저 수업 전 설문에서 본 연구의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영어 번역기 사용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기계번역기 사용의 편리성이다. 학습자들은 “빠르다”, “편리하다”, “쉽다”는 것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둘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적당한 답을 얻어낼 수 있다”, “해석을 하다 막힌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다”처럼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학습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셋째, 어휘 의미 해석, 독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즉, “어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궁금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다”,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여러 가지의 의미로 알 수 있었다”, “모르는 단어를 알 수 있다”, “내가 모르던 표현을 알 수 있다”처럼 독해에 대

한 어려움 해소를 장점으로 언급하였다.

수업 후 설문에서도 “빠르다”, “편리하다”, “쉽다”라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수업 전 설문과 차이점은 “여러 번역기들로 번역해보며 각각의 장단점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는 응답처럼 각 번역기의 장단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응답, “번역이 생각보다 잘되었다”처럼 번역기의 성능을 칭찬하거나 “영어에 대한 실력이 부족한 내가 친구들과 같이 기계번역을 하면서 문장의 어색한 부분을 찾으려다 영어에 대한 뜻을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이 장점이다”처럼 조별 영어 학습의 장점을 언급한 응답도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기계번역기를 통해 새로운 소설과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졌던 영어에 부담이 덜 느껴졌다”와 같이 번역기를 사용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를 느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수업 전 설문에서 기계번역기 사용의 단점으로는 주로 오역이나 어색한 번역,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어색했다는 점을 많이 언급했고 “나의 영어 실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어 기계번역기에만 의존하게 됨”처럼 번역기에 의존하는 문제를 단점으로 꼽았다. 수업 후 설문에서는 번역기 사용의 단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첫째, 오타, 인용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및 콤마 등의 문장 부호 사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역 문제를 비롯하여 형식적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 둘째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 셋째, 고유명사 해석 오류, 넷째, 영어 어순에 따른 직독직해로 한국어 구조에 맞지 않는 문제, 다섯째, 어투가 균일하지 않은 문제를 단점으로 들었다. 즉 학습자들은 포스트 에디팅 수업을 통해 다양한 번역기를 체험하고 장점과 단점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4.1.4 영어 기계번역기 사용에 대한 영어 능력 향상의 기대치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 관계

수업 전 설문에서 영어 번역기 사용으로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을 물어본 결과, 55.1%(27명)의 학생이 쓰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 읽기 26.5%(13명), 듣기 10.2%(5명), 말하기 8.2%(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영어 학습을 할 때 기계번역기를 사용하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55.1%(27명)가 ‘보통이다’고 답변하였고

긍정적 기대는 ‘그렇다’ 24.5%(12명)와 ‘매우 그렇다’ 10.2%(5명)로 34.7%를 차지하였고, 부정적 기대는 ‘그렇지 않다’ 8.2%(4명)였다. 영어 학습을 할 때 기계번역기를 사용하면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설문에서는 42.9%(21명)가 ‘보통이다’고 응답하였고 ‘그렇다’ 32.7%(16명), ‘매우 그렇다’ 12.2%(6명)로 긍정적 기대가 44.9%였다.

수업 후 기계번역기의 사용과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습자는 52.4%(그렇다 47.6%, 매우 그렇다 4.8%)로 수업 전에 비해 17.7%로 증가한 반면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12.2% 감소한 42.9%였다. 이 결과는 기계번역기의 적절한 사용이 영어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 후 설문에서 영어 수업에서 기계번역기 사용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서 52.4%(22명)의 학생이 ‘그렇다’, 23.8%(10명)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여 약 75%의 학생이 수업에서 번역기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기의 도입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에서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보였다($r=.459$, $p<.05$). 수업에서 번역기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영어 수업에서 기계번역기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수업 후 설문)

분류	학습자 응답
편리성과 효율성	해석이 안될 때 막혀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에 따라 흥미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었다
	수업하기가 편하다
	단시간 안에 모르는 영어단어나 표현법을 찾을 수 있어 짧은 수업시간에 비해 효율적이다
영어에 대한 흥미	어짜피 모르는 거 쉽게 하면 흥미라도 있으니까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조금 힘든 점이 있었는데 기계번역기 사용으로 영어에 흥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가 학습 도구로서의 유용함	모르는 단어를 바로 바로 찾을 수 있어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모르는 부분을 빠르게 알기에 공부가 되기 때문이다
	혼자 해내기 어려운 것들은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아 한 단계 성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포스트 에디팅 수업의 장점	긴 문단을 번역기를 통해 번역해볼 기회가 잘 없고 번역된 결과물이 매끄럽게 잘되었는지 확인해볼 기회도 잘 없었는데 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오류를 찾으며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영어 수업에서 번역기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로 편리성과 효율성, 어려운 영어에 흥미가 생긴다는 점, 단어 의미 해석과 관련한 장점과 모르는 부분 해결을 교수자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 포스트에디팅 수업의 장점을 꼽았다. 특히 본 연구의 학습자들은 평소 수업에서 모르는 것에 대한 심리적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를 교수자에게 질문하지 않고 스스로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려워하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기계번역기를 통해 어려움이 해소될 때 오히려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1.5 기계번역기 사용과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사용자 인식

수업과 상관없이 평소 기계번역기를 사용한 후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설문에서 50%(21명)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학생이 1명(2.4%) 있었다. 40.5%(17명)의 학생은 ‘보통이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수업에서 기계번역기 사용 후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질문에 59.5%(25명)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1명 있었다(2.4%). ‘보통이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8.6%였다(12명). 즉 본 연구의 학습자들은 평소 혼자 번역기를 사용할 때보다 수업에서 번역기를 사용하고 영어 능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수업에서의 번역기 사용이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번역기를 도입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r=.459, p<.05$).

보다 세부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어휘 능력이 향상되었느냐는 질문에서 ‘그렇다’(20명, 47.6%), ‘보통이다’(14명, 33.3%), ‘매우 그렇다’(4명, 9.5%) 순으로 나타났고, 문장의 뜻이나 해석 부분이 향상되었다는 질문에서 ‘그렇다’(24명, 57.1%), ‘보통이다’(8명, 19%), ‘그렇지 않다’(5명, 11.9%), ‘매우 그렇다’(4명, 9.5%)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학습자들은 어휘와 문장 이해 부분에서 모두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답변한 반면, 특히 문장 이해와 독해의 측면에서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더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영어 읽기 능력이 낮을수록 번역기의 사용이 문장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것이다($r=.370, p<.05$). 클리퍼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언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기계번역기를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4.1.6 기계번역기 사용과 교수자의 역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학습자들은 수업 밖에서나 수업 내에서도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스스로 즉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이러한 경향은 ‘영어 학습 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의 응답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해당 질문은 수업 전과 수업 후 설문에서 모두 물어보았다. 먼저 수업 전 설문에서 49%(24명)의 응답자가 번역기라고 응답하였고, 교수 36.7%(18명), 친구 8.2%(4명), 참고서/사전 6.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 후 설문에서도 전체 응답자 42명 중 번역기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0%(21명), 참고서/사전 16.7%(7명)로 나타나 약 67%의 응답자가 번역기나 사전 등 영어 학습도구에 도움을 받고 싶은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수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은 31%(13명),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은 1명(2.4)이었다. 즉 번역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들은 교수나 친구보다도 번역기와 사전과 같은 영어 학습도구에 도움을 받고 싶은 경향이 강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 부분이 교수자로서 고민되는 지점인데 그렇다면 교수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수의 피드백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수업에서 영어 기계번역기를 사용할 때 교수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를 수업 전, 수업 후 설문에서 모두 질문하였다. 수업 전, 수업 후 설문에 모두 과반수 이상이 ‘그렇다’고 답변하여 수업 시간에 번역기를 사용하더라도 교수의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수업 전 설문에서 ‘그렇다’ 54.2%(26명), ‘매우 그렇다’ 16.7%(8명)로 약 70%의 학생이 교수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수업 후 설문에서도 57.1%(24명)가 ‘그렇다’고 답변하고, 16.7%(7명)이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여, 약 73%의 학생이 교수의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고 답변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한 영어 능력과 번역기 사용 시 교수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65, p<.01$). 이는 영어 능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번역기를 사용하더

라도 교수자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4.1.7 기계번역을 이용한 영어 학습에 적합한 장르

실제 포스트에디팅 교과를 설계할 때 어떤 장르를 선택해서 번역수업을 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계번역과 장르의 사용자 인식을 설문하였다. 본 연구의 학습자는 수업에서 소설과 뉴스 번역을 다룬 후 설문에 응한 결과 47.6%(20명)가 뉴스 번역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47.6%(20명)의 경우 소설, 뉴스 모두 기계번역 사용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미루어보면 전반적으로 뉴스 번역에서 기계번역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도입하여 학습한다면 어떤 장르의 독해를 학습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설문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인 40.5%(17명)가 뉴스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연설(11명, 26.2%), 소설(8명, 19%), 시(6명, 14.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계번역기 사용 경험에 대해 만족과 매우 만족을 표현한 30명 중에서 13명은 뉴스, 8명은 연설 장르를 선택하였고, 7명은 소설을 선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들이 소설을 포스트에디팅한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²⁾ 정보적 텍스트와 호소적 텍스트인 뉴스와 연설 번역에서 기계번역을 학습하고 싶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설과 시와 같은 문학번역에서 기계번역을 학습하고 싶다는 응답자 수는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니노(2009: 250-251)의 연구에서 교강사들이 외국어 수업에서 기계번역기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로 텍스트 장르의 적합성 문제, 즉 창의적 텍스트를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4.2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오류 교정 및 누락 유형 분석

본 연구의 학습자 포스트에디팅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모국어 특성과 관련된 수정 및 오류 누락, 문장 구조 분석 오류로 인한 번역 오류, 맥락에 적합한 어휘 의미 선택 오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오류 교정과 누락을 패턴별로

2) 한편 시를 선택한 6명 중 3명은 기계번역기 사용 경험에 대해 불만족을, 1명은 보통을 선택했다.

나누어 살펴보자.

4.2.1 모국어 특성과 관련된 언어 수정 및 오류 누락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종결어미를 활용한 존대법으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번역의 결과물에서 가장 현저한 오류는 존대법의 체계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학습자들의 일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다. 다음 (1)을 보자.

(1) 존댓말/반말 어투 일관화

ST1³⁾: Della lay down on the old bed and cried and cried. Let's leave

Della alone for a while and look at her home.

구글: 델라는 낡은 침대에 누워 울고 울었다. 잠시 동안 델라를 홀로 남겨 두고 그녀의 집을 보자.

파파고: 델라는 낡은 침대에 누워서 울고 또 울었다. 델라는 잠시 내버려 두고 그녀의 집을 살펴봅시다.

카카오: 델라는 낡은 침대에 누워 울고 또 울었다. 델라를 잠시 혼자 내버려 두고 집을 둘러보자.

학생 번역: Della는 낡은 침대에 누워서 울고 또 울었다. Della를 잠시 내버려두고 그녀의 집을 살펴보자.

(1)의 학생 번역은 파파고를 수정한 예이다. (1)의 경우 학생들은 고유명사인 ‘델라’를 영문표기로 바꾸었고 내레이션은 반말로 처리하였다. 대체로 소설에서 내레이션과 대화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내레이션은 반말로 처리, 대화의 경우 반말 또는 존댓말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다른 학생들 포스트에디팅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어투 수정의 필요성을 일지에 언급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시키지 않고 일부는 누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전공자의 영한번역을 분석한 이상빈(2017: 60)에서도 학습자들은 언어와 문체 수정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두 연구의 번역교육과 언어교육이라는 연구환경의 차이, 연구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전반적 포스트에디팅 교육 설계에 단일언어 교열 교육이

3) ST1: 소설, ST2: 뉴스, 자세한 텍스트 정보는 3장 참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어는 종결형, 연결형, 관형사형 어미 등을 사용하여 시제를 표현하며 번역문에서 시제의 정확한 표현은 의미 전달에 중요하다. 기계번역의 결과물에서 시제가 일관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관찰되었는데, 학습자의 결과물 중 이를 수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2) 시제 표현의 일관성

ST1: And tomorrow would be Christmas. What Christmas gift could she buy with only one dollar and eighty-seven cents? Della lay down on the old bed and cried and cried.

구글: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 그녀는 단돈 1달러 87센트로 살 수 있습니까? 델라는 낡은 침대에 누워 영영 울었다.

파파고: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이다.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그녀는 단지 1달러 87센트로 살 수 있었을까? 델라는 낡은 침대에 누워서 울고 또 울었다.

카카오: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그녀는 1달러 87센트로 살 수 있을까? 델라는 낡은 침대에 누워 울고 또 울었다.

학생 번역 1: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그녀는 1달러 87센트로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있을까? 델라는 낡은 침대에 누워 울고 또 울었다.

학생 번역 2: 내일이면 크리스마스가 될 거야. 그녀는 단돈 1달러 87센트로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있었을까? 델라는 낡은 침대에 누워서 울고 또 울었다.

(2)에서 보듯이 could의 시제 번역이 번역기에 따라 현재 혹은 과거로 되어 있는데, 이 문맥에서 우리말로의 번역은 현재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번역기의 번역을 그대로 수용하여 과거시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는 다양한 조사의 사용으로 문장 구성 요소 간의 의미 관계를 전달하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번역기의 결과물에서 부자연스러운 조사의 사용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학습자들은 많은 경우 문맥에 맞는 조사로 수정을 하지

않았다. 부적합한 조사의 사용은 문장의 명제적 의미 전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번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조사 수정의 한계는 모국어 구조에 대한 메타언어적 지식(metalinguistic knowledge)의 부족에 기인한 듯하다. 메타언어 지식은 언어의 구조에 주목하고 문법적 오류를 수정하고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음의 (3)과 (4)를 보자.

(3) 조사 사용의 정확성 1

ST2: By Wednesday morning, many were left with the grim reality of an unimaginable horror...

구글: 수요일 아침이 되자

파파고: 수요일 오전까지는

카카오: 수요일 아침까지,

학생번역: 수요일 아침까지

뉴스의 경우 많은 그룹이 카카오 번역기의 결과물을 선호하였는데, 카카오 번역기의 경우 밑줄 친 부분의 전치사 by를 ‘~까지’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by는 구글의 번역이 더 정확하는데 그룹 중 절반 정도는 이를 수정없이 그대로 채택하였다.

(4) 조사 사용의 정확성 2

ST1: The other was Della's hair. It was long and brown, and fell down her back.

구글: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카락이었다. 그것은 길고 갈색이었고, 그녀의 등에 쓰러졌습니다.

파파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카락이었다. 그것은 길고 갈색이었고, 그녀의 등 아래로 떨어졌다.

카카오: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카락이었다. 그것은 길고 갈색이었고, 그녀의 등 아래로 떨어졌다.

학생번역: 다른 하나는 Della의 머리카락이었다. 그것은 길고 갈색이었고, 그녀의 등 아래로 내려왔다.

(4)의 학생 번역은 파파고를 수정한 예로 ‘등 아래로’보다 ‘등까지’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4.2.2 문장 구조 분석 오류에 기인한 번역 오류

(5)의 경우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대명사절의 기능과 인용표현을 목적으로 취하는 say 동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 번역 2는 이러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전혀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형식으로 번역을 수정한 결과를 보인다. 다음의 예를 보자.

(5) 문장 구조 분석 실패에서 기인한 번역 오류 1

ST1: She stopped in front of a door which said, MME. SOPHRONIE.

HAIR OF ALL KINDS.

구글: 그녀는 문 앞에 멈춰 섰다, MME. 소프로니.

파과과: 그녀는 문 앞에 멈췄다. MME. SOPHRONIE. HAIR OF ALL KINDS.

카카오: 그녀는 MME라고 쓰인 문 앞에 멈춰 섰다. 소프로니.

학생번역 1: 그녀는 MME SOPHRONIE. HAIR OF ALL KINDS라고 적힌 문 앞에 멈춰섰다.

학생번역 2: 그녀는 문 앞에 멈춰서서 말했다. 소프로니. 모든 종류의 머리카락. 마달

(5)의 학생 번역 1은 ‘MME SOPHRONIE. HAIR OF ALL KINDS’가 문 앞에 쓰여진 상호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번역한 예이다. 다만 상호명을 한글로 제대로 옮기지 않고 문장 구조 수정만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상호명을 어떻게 한국어로 옮겨야 될지 몰랐거나, (1)의 ‘델라’를 ‘Della’로 바꾼 예처럼 올바른 번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한글과 영어가 혼재하는 양상을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생 번역 2에서 보듯이 일부 학생들은 해당 문장의 구조와 이 문장에서 said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전혀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문장으로 수정을 하였다. (5)의 카카오 번역에서 일부 오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문구가 ‘문 앞에 쓰여진 문구’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이를 번역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세 개의 번역 결과물을 면밀하게 비교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번역기 결과물의 잘된 것을 선택해서 반영하는 번역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6) 문장 구조 분석 실패에서 기인한 번역 오류 2

ST2: “Such a fast little boy and he could catch a ball so good,” Renfro said.

구글: 그렇게 빠른 어린 소년과 그는 공을 아주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Renfro가 말했습니다

파파고: 그렇게 빠른 어린 소년과 그는 공을 아주 잘 잡을 수 있었습니
다.”라고 렌프로가 말했다.

카카오: 그렇게 빠른 어린 소년과 그는 공을 아주 잘 잡을 수 있었다.’ 라
고 렌프로가 말했다.

학생 번역: 빠른 어린 소년과 그는 공을 아주 잘 잡을 수 있었다, 라고
Renfro가 말했다.

대부분의 그룹은 본인들이 선택한 기계번역기의 번역문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정을 하지 않았다. ‘Such a fast little boy’는 독립된 문장에서 주어 동사(he was)가 생략된 것임을 파악하지 못해 ‘Such a fast little boy and he’를 문장의 주어로 분석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것이다. 즉, 학생들의 문장 구조 분석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2.3 맥락에 적합한 어휘의 의미 선택 오류

(7) 맥락상 어색한 부분 수정

ST2: One man walked away from a civic center where desperate relatives had gathered for news late Tuesday sobbing into his phone: “She is gone.”

구글: 한 남자가 화요일 늦은 소식을 듣고 절망적인 친척들이 모여든 시
민회관에서 일어나와 전화기에 흐느끼며 ‘그녀는 사라졌다’고 말했
다.

파파고: 한 남자가 떨어진 곳에서 필사적인 친척들 소식을 화요일 늦게
그의 전화에 흐느껴 우는 모였던 시민 회관에서: “그녀는” 건물
뒤에 여자 혼자, 번갈아 가며 그녀의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흔들 기법, 그녀의 발을 구르며 울고 서서 사라진다 걸었
다.

카카오: 한 남자는 화요일 오후 뉴스를 위해 필사적인 친척들이 모여 있던
시민회관에서 일어나와 전화기에 대고 흐느꼈다: ‘그녀는 떠났다.’

학생 번역: 한 남자는 화요일 오후 뉴스를 위해 절망적인 친척들이 모여 있던 시민회관에서 일어나와 전화기에 대고 흐느꼈다: ‘그녀는 죽었다.’

(7)의 학생 번역은 카카오를 기반으로 포스트에디팅 한 예이다. 학생들은 ‘desperate’이 맥락상 ‘필사적인’ 보다는 ‘절망적인’의 의미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이를 수정하였고, 총기 사건으로 숨진 사람을 묘사하는 대목에서도 ‘she’s gone’에 대한 번역으로 ‘그녀는 떠났다’ 보다는 ‘그녀는 죽었다’의 의미가 맥락상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여 이를 수정하였다. 특히 파파고 번역의 질이 매우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생들도 이를 인식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뉴스 번역에서 카카오를 선택하였다. 소설 번역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파고를 선택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8) 수식대상과 수식표현 관계 호응 교정

ST1: His face was thin and quiet.

구글: 그의 얼굴은 가늘고 조용했다.

파파고: 그의 얼굴은 아위고 조용했다.

카카오: 그의 얼굴이 가늘고 조용하더라.

학생 번역 1: 그의 얼굴은 아위고 조용했습니다.

학생 번역 2: 그의 얼굴은 가냘팠다.

(8)은 구글 번역을 참고하여 포스트에디팅한 예이다. ‘His face was thin’에서 학생들은 영어로는 해당 표현이 괜찮지만 직역하여 ‘그의 얼굴이 가늘다’라고 표현하면 어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위다’ 혹은 ‘가냘팠다’로 수정하였다. 학습자는 교정하기와 같은 인지적 과정을 거치면서 모국어인 한국어 표현이 올바른 것인지 언어 구조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모국어뿐만 아니라 L2인 영어 표현의 어휘, 언어구조까지 학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table is poor’의 경우 ‘테이블이 가난하다’로 기계번역된 것을 일부 학생들은 ‘테이블이 낡았다’로 고쳤으나 또 다른 일부 학생들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메타언어 지식은 외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Bialystok, Peets and Moreno 2014; Roehr 2007) 포스트

에디팅 활동에서의 오류 수정은 학습자들의 메타언어 지식에 의존하므로 오류와 누락 수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학생들은 메타언어 지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기계번역기를 사용한 학습 활동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L1과 L2의 어휘와 문장구조 및 두 언어의 차이 등에 주목하게 하고 이를 통해 메타언어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언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Jolly and Maimone 2022), 언어학습에서 기계번역기의 활용은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오역 수정

ST2: As Ybarra prepared to give blood for the wounded, she wondered how no one noticed trouble with the shooter in time to stop him.

구글: Ybarra가 부상자를 위해 피를 줄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는 그를 제 시간에 제시간에 범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파파고: Ybarra 부상자를 위한 혈액을 주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그녀는 어떻게 아무도 시간 그를 막기에 그 저격수에 문제가 있는 것을 궁금해 했다.

카카오: 이바라가 부상자들을 위해 피를 흘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어떻게 아무도 저격수와의 문제를 제때에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궁금했다.

학생 번역: 이바라가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어떻게 아무도 저격수와의 문제를 그를 막을 적절한 한때에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궁금했다.

(9)는 정확성 오류를 수정한 예로 카카오 번역에서 ‘give blood’가 ‘피를 흘리다’로 오역된 것을 ‘헌혈 준비를 하다’로 고친 예이다. ‘give’의 의미는 주다, 기부하다, 제공하다, (파티를)하다 등 다양하며 정확한 의미는 함께 사용되는 어휘 즉, 연어(collocation) 양상에 의해 결정된다. ‘give a party’의 경우 ‘파티를 하다’로 해석되듯이 ‘give blood’는 ‘헌혈을 하다’로 해석되는데, 11개 그룹 중 2개 그룹은 여전히 ‘피를 흘릴 준비’라는 기계번역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정을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Magi’와 같은 문화적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영

어 표현 그대로 두거나 ‘마기’로 번역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gift’와 같은 다의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the gift of Magi’를 ‘마기의 재능’과 같이 오역한 것을 수정하지 않고 누락하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학부 교양영어 교육에서 포스트에디팅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한 사례연구로 학습자의 기계번역 사용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살펴보고 영한 번역 방향의 포스트에디팅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누락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학교 신입생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번역기를 사용하였기에 수업에서 번역기 사용에 대해 거리낌이 거의 없고 오히려 번역기를 사용하여 수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수업에서 번역기 사용이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수업에서 번역기 사용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번역기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수업에 따라가기 좋은 효율성, 교수나 동료에게 물어보지 않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편리성, 자기주도 학습의 용이성, 어려운 영어 수업을 쉽게 할 수 있기에 영어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는 점 때문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영어 읽기 능력이 낮을수록 번역기의 사용이 문장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는 클리퍼가 지적한 것처럼 언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번역기를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과 연관될 수도 있고, 언어 숙련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번역기 사용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설문결과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한 영어 능력과 기계번역기 사용 시 교수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영어 능력이 낮은 학생일수록 번역기를 사용하더라도 교수자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수업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셋째, 학생들은 세 개의 번역기를 활용했지만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번역기에서 나온 장점을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목도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세 개의 결과물을 자세하게 비교하지 않았거나 번역기 결과물의 잘된 것을 선택해서 자신들의 포스트에디팅에 반영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번역기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존댓말/반말 어투의 통일, 문장 부호나 숫자의 처리, 고유 명사 번역처럼 눈에 잘 띄는 형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번역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학생들의 포스트에디팅에서 주로 수정되는 양상, 혹은 누락 사례를 살펴보면 번역능력과 연관된 모국어 특성과 관련된 수정 및 오류 누락, 맥락에 적합한 어휘 의미 선택 오류, 언어능력과 연관된 문장 구조 분석 오류로 인한 번역 오류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번역학 분야에서 학습자 포스트에디팅의 부족한 점으로 지적되었던 라이트 에디팅의 경향이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으며 번역교육과 언어교육 분야에서 모두 지적되었던 문제, 즉 번역기 사용 후에도 문장 구조 오류, 어휘 선택 오류가 개선되지 않는 문제(예: 이상빈 2017; 이운재 2020)가 본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는 번역기 사용의 효과성을 위해서 교수자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학생들은 포스트에디팅 수업을 통해서 언어 구조에 좀 더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번역기 선택 이유와 실제 포스트에디팅에서 나타났듯이 존댓말/반말이 잘되어 있다, 혹은 잘 안되어 있다고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 능력이 있으며 이를 언어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번역교육이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모국어 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트랜스랭기징 이론, 벨람(2003) 연구에 근거하여 포스트에디팅을 도입한 교육이 L1, L2의 언어 구조, 문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포스트에디팅을 도입한 교육과 연구에서는 개별 포스트에디팅 사례에 집중했으나(Lee 2022) 본 연구는 조별 활동을 기반으로 포스트에디팅 교육 사례를 진단한 점이 특징이다. 실제 일지 분석에서 학생들은 혼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어 수업 활동을 동료와의 협업으로 진행하니 보다 쉽고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포스트에디팅 수업 후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를 통해 진단하지 않고 학생들의 자가진단을 통해 이루어 짐작한 점이다. 줄리와 메이몬(2022: 3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계번역

을 도입한 연구에서 다양한 기계번역 툴과 활동이 실제 언어 능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밝힌 연구는 국내외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포스트에디팅 수업이 장기적으로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수업 전/후 평가를 동반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저자들의 향후 연구로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순미, 신호섭, 이준호 (2019) 「번역학계와 언어서비스업체(LSP)간 산학협력연구: 포스트에디팅 생산성과 기계번역 엔진 성능 비교」, 『번역학연구』 20(1): 41-76.
- 김자경 (2022) 「한영 포스트에디팅에서 정확성 오류의 수정 양상 고찰」, 『번역학연구』 23(5): 91-117.
- 마승혜 (2018)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경험적 고찰: 학부 교육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1): 53-87.
- 박혜경 (2018) 「석사 과정의 기계번역 수업에 대한 소고: 한일 번역 전공생의 포스트에디팅 사례를 통하여」, 『번역학연구』 19(3): 163-193.
- 서보현, 김순영 (2020) 「번역사의 번역교육 경험이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21(3): 63-91.
- 이상빈 (2017) 「학부 번역전공자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통역과 번역』 19(3): 37-64.
- 이상빈 (2018) 「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현상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17-143.
- 이윤재 (2020) 「영어자동번역기 활용이 고등학생 영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호 (2021) 「한영 포스트에디팅,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가?: 포스트에디팅 수업 설계를 위한 예비연구」, 『번역학연구』 22(1): 171-198.
- 임희주 (2017) 「교양영어 수업에서 영어자동번역기 사용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727-751.

- 조인희 (2018) 「기계번역을 활용한 영어작문 수업의 효과: 자기 효능감과 글쓰기의 양적 증가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60(2): 253-279.
- Belam, Judith (2003) ‘Buying up to Falling down: A Deductive Approach to Teaching Post-editing’,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Teaching Translation Technologies and Tools*, MT Summit IX, New Orleans, 1-10.
- Bialystok, Ellen, Kathleen F. Peets and Sylvain Moreno (2014) ‘Producing Bilinguals through Immersion Education: Development of Metalinguistic Awareness’, *Applied Psycholinguistics* 35(1): 177-191.
- Cano, Jessica and Nadeen Teresa Ruiz (2020) “‘Wait, I Don’t Get It! Can We Translate?’: Explicit Collaborative Translation to Support Emergent Bilinguals’ Reading Comprehension in the Intermediate Grades”, *Bilingual Research Journal* 43(2): 157-177.
- Jolley, Jason R. and Luciane Maimone (2022) ‘Thirty Years of Machine Translation i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L2 Journal* 14(1): 26-44.
- Kliffer, Michael (2005) ‘An Experiment in MT Post-editing by a Class of Intermediate/advanced French Majors’, *Proceedings of the 10th EAMT Conference*, Budapest, 160-165.
- Lee, Jeong-Hwa (2019) A Study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English Composition Assisted by Machine Translators. PhD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outh Korea.
- Lee, Sangmin-Michelle (2022) ‘Different Effects of Machine Translation on L2 Revisions Across Students’ L2 Writing Proficiency Levels’,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26(1): 1-21.
- Lewis, Derek (1997) ‘Machine Translation in a Modern Languages Curriculum’,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10(3): 255-271.
- Mitchell, Linda (2015) ‘The Potential and Limits of Lay Post-editing in an Online Community’, *Proceedings of the 18th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Associations for Machine Translation*, 67-74.

- Niño, Ana (2004) 'Recycling MT: A Course on FL Writing via MT Post-editing', *Computational Linguistics United Kingdom 7th Annual Research Colloquium*, University of Birmingham, 179-187.
- Niño, Ana (2009) 'Machine Translation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ers' and Tutors' Perceptions of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eCall* 21(2): 241-258.
- O'Brien, Sharon (2002) 'Teaching Post-editing: A Proposal for Course Content', *Proceedings of the 6th EAMT Workshop: Teaching Machine Translation*, 99-104.
- Qureshi, Muhammad Asif and Ahmad Aljanadbah (2022) 'Translanguag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in a Second Language', *International Multilingual Research Journal* 16(4): 247-257.
- Roehr, Karen (2007) 'Metalinguistic Knowledge and Language Ability in University-Level L2 Learners', *Applied Linguistics* 29(2): 173-199.
- Sánchez-Gijón, Pilar and Olga Torres-Hostench (2014) 'MT Post-editing into the Mother Tongue or into a Foreign Language? Spanish-to-English MT Translation Output Post-edited by Translation Trainees', *Third Workshop on Post-Editing Technology and Practice (AMTA)*, 5-19.
- White, Kelsey, D. and Emily Heidrich (2013) 'Our Policies, Their Text: German Language Students' Strategies with Beliefs about Web-based Machine Translation', *Die Unterrichtspraxis / Teaching German* 46(2): 230-250.

부록 1. <기계번역 사용인식에 대한 설문 (수업 전)>

본 설문은 교양영어 수업 개선의 연구와 교육 목적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되며 본 설문 결과와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응답자의 배경정보]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성 ②여성

2.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①19 ②20 ③21 ④22이상

3. 해외 영어권 체류 경험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3개월 미만 ③3개월 이상-6개월 미만 ④6개월 이상-1년 미만 ⑤1년 이상

4. 당신은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5-1. 당신의 읽기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초급 ②중급 ③상급

5-2. 당신의 듣기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초급 ②중급 ③상급

5-3. 당신의 말하기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초급 ②중급 ③상급

5-4. 당신의 쓰기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초급 ②중급 ③상급

[수업 전 기계번역기 사용경험에 대한 설문]

6. 당신은 영어 기계번역기(예: 파파고, 구글 번역기 등)를 사용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경우, 15번 문항으로 넘어가주세요)

①있다 ②없다

7. 영어 기계번역기를 언제 처음 사용해보셨습니까?

①초등학교 1-3년 ②초등학교 4-6년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대학교

8. 평소 자주 사용하는 기계번역기는 무엇입니까?
①구글 트랜스레이트 ②네이버파파고 ③기타
9. 다음 중 어떤 목적으로 기계번역기를 사용하십니까?
①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②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10. 영어 기계번역기의 사용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영어 글쓰기를 할 때 적절한 어휘나 표현을 찾기 위해서
②영어 글쓰기를 할 때 문장의 구조나 문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③영어 단어 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④독해 시 영어 어휘나 표현의 뜻을 알기 위해서
⑤독해 시 영어 문장의 뜻이나 해석을 알기 위해서
⑥기타
11. 위의 10번 문항에서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기계번역기 사용 목적이 무엇
인가요?

-
- 12-1.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기계번역기 사용 후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①매우 불만 ②불만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 12-2.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기계번역기 사용 후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①매우 불만 ②불만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13. 영어 기계번역기 사용의 장점은 무엇입니까?(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
14. 영어 기계번역기 사용의 단점은 무엇입니까?(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

[기계번역기 사용과 영어 학습에 대한 기대]

15. 다음 영역 중에서 영어 기계번역기 사용이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①말하기 ②쓰기 ③읽기 ④듣기
16. 나는 영어 학습을 할 때 기계번역기를 사용하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질 것이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7. 나는 영어 학습을 할 때 기계번역기를 사용하면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8. 나는 영어 독해를 할 때 기계번역기를 사용하면 어휘/표현 부분이 향상될 것이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9. 나는 영어 독해를 할 때 기계번역기를 사용하면 문장의 뜻이나 해석 부분이 향상될 것이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기계번역기 사용과 교수자의 역할]

20. 영어 학습 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①영어 기계번역기 ②참고서/사전 ③교수 ④친구
21. 영어 기계번역기를 사용할 때 교수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2.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수업 후 설문지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부록 2. <기계번역 사용인식에 대한 설문 (수업 후)>

1-5.4까지 응답자의 배경정보에 관한 설문은 수업 전 설문과 동일함.

[수업 후 기계번역기 사용경험에 대한 설문]

6. 기계번역기 사용 후 기계번역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①매우 불만 ②불만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7. 사용 후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기계번역기는 무엇입니까?
①구글 트랜스레이트 ②네이버 파파고 ③카카오 ④기타
8. 가장 만족했던 기계번역기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9. 수업 후 느꼈던 영어 기계번역기 사용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10. 수업 후 느꼈던 영어 기계번역기 사용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기계번역기 사용 경험과 영어에 대한 흥미도에 관한 설문]

11. 나는 기계번역기를 사용 후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전반적인 기계번역기 사용 경험에 관한 질문)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2. 나는 수업에서 기계번역기를 사용 후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영어 수업에서 기계번역기 사용 경험에 관한 질문)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3. 나는 영어 수업에서 기계번역기 사용 도입에 찬성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4. 상기 13번 질문에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계번역기 사용 후 영어 능력 향상에 관한 설문]

15. 나는 기계번역기를 사용 후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전반적인 기계번역기 사용 경험에 관한 질문)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6. 나는 수업에서 기계번역기를 사용 후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수업에서 기계번역기 사용에 관한 설문)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7. 나는 영어 독해를 할 때 기계번역기를 사용하니 어휘 부분이 향상되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8. 나는 영어 독해를 할 때 기계번역기를 사용하니 문장의 뜻이나 해석 부분이 향상되었다.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기계번역기와 교수자의 역할에 관한 설문]

19. 영어 학습 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 ①영어 기계번역기 ②참고서/사전 ③교수 ④친구

20. 영어 기계번역기를 사용할 때 교수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기계번역기와 대상 텍스트 장르에 관한 설문]

21. 수업 후 어떤 장르의 번역이 기계번역 사용에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①소설 ②뉴스 ③소설, 뉴스 모두 기계번역 사용에 적합 ④소설, 뉴스 모두 기계번역 사용에 부적합

22. 영어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도입하여 학습한다면 다음의 장르 중 어떤 장르의 독해를 학습하고 싶습니까?

- ①소설 ②뉴스 ③시 ④연설 ⑤기타

23.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수업전 설문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_____

[Abstract]

**Post-editing in an EFL Reading Class:
Focusing on Learners' Perception and Error Analysis**

Hyeson Park & Jinsil Choi
(Keimyung University)

In recent years,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has gained much popularity not only in translator training programs and courses but also in EFL classes.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owever, largely focused on the impact of machine translation (MT) on L2 writing. Building upon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pedagogical application of MT, and by adopting the concept of translanguaging that legitimises learners' deployment of full linguistic repertoire including L1, this study explores Korean EFL learners' perceptions of MT and frequent errors in English-into-Korean post-edit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and students' self-reports of their experience with MT, the use of MT in EFL learning was perceived by the learners as an innovative and positive learning experience. The learners highly appreciated the use of MT in their reading practice and post-editing by pointing out that the use of MT reduces stress and increases motivation to learn English. This study also reveals that post-editing practice can help learners understand deficiencies in free online MT output and raise their awareness of the linguistic structure and subtleties of language.

Keywords: English-into-Korean translation, error analysis, learners' perception, machine translation, post-editing, survey

주제어: 영한 번역, 오류 분석, 학습자 인식,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설문

박혜선(1저자)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parkhy@kmu.ac.kr

관심 분야: 외국어 습득, 통사론, 화용론, 코퍼스언어학

최진실(교신저자, <https://orcid.org/0000-0003-3009-9550>)

계명대학교 타블라라사칼리지 조교수

diane45@kmu.ac.kr

관심 분야: 코퍼스 번역학, 영상번역, 개화기 번역, 포스트에디팅

논문 투고: 2023년 2월 1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7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15일

게재 확정: 2023년 3월 23일